

農村品값 15~30%올라

농기계 賃作業料도 10~25%나

하루男 3萬원 女 2萬원線
그나마 일손없어 田畚놀려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이 크게 달린면서 품값이 지역에 따라 작년 이맘때보다 15~30%, 농기계賃作業料는 10~25%씩 올랐다.

농촌임금과 농기계임차업료가 이처럼 급등한데다 재배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농민들은 시설채소 재배면적을 줄이는가 하면 천수답을 경지정리가 안된 논에는 아예 농사지를 생각을 못해 遊休농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全南羅州군南平면의 경우 요즘이 시금치등 시설채소의 출하기인데 여자하루 품값이 1만5천원(식사제공으로) 작년 이맘때의 1만2천~1만3천원보다 15~25%나 올랐고 그나마 일손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慶南咸安군代山면의 경우도 최근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수박을 출하할기를 맞았으나 필요한 일손이 달리고 품값도 남자 하루 3만원, 여자는 1만8천~

2만원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20~33%가 상승했다. 농촌임금이 대폭 오르는 것은 농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도 있지만

근도시 건출공사장들의 임금이 오르면서 텅텅아 뛰기 때문이다. 농기계가 없는 농민이 기계영농작업을 위탁하고 지



「농촌 人力은행」개설
은 최근 「농촌인력알선은행」을 개설, 도시인력을 농촌에 소개해주고 있다.

불하는 입차업료도 羅州의 경우는 2백평당 작년의 경우 1만4천~1만6천원에서 올해는 1만8천~2만원으로 25%이상 올라 올해 영농비용은 예년보다 훨씬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촌임금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나마도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농민들은 채소류나 수박등을 재배할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다는 것.

수박 주산지인 咸安郡代山農協의 裴鐵均지도부장(43)은 올해 일손부족이 더욱 심해져 수박재배면적을 예년보다 30%정도 줄인 농민이 많다면서 『이달말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되면 이부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져 모내기가 늦어지거나 아예 모를 심지 못하는 논도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민들특히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입차업료를 20%이상씩 일박적으로 인상, 영세농들의 피해가 많다고 주장했다.